

# “통합특별시 첫 일꾼 내 손으로” “아이 위한 더 나은 세상을”

6·3 지선 광주 사전투표소

평일 점심시간 관외 투표자 잇따라  
지역민 최대 관심사 ‘초대 통합시장’  
토요일도 북적...마감 직전 투표자도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신중히 투표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29-30일 광주 지역 사전투표소 곳곳에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사전 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11시께 광주 동구 충장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점심 시간을 앞두고 다수의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정장이나 작업복 등 다양한 차림으로 온 이들은 등록 기준지에 따라 관외와 관내로 나뉘 줄을 섰다. 이후 신원 확인을 거쳤고 지역 상황에 맞는 투표 용지를 배부받았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와 달리 여러령을 뺏아야 해 대기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지만, 답답함을 토로하는 이들은 없었다.

가족·부부 단위의 유권자들은 마지막까지 귀속말을 나누는 등 투표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조영권 기자

투표소를 나온 이들은 너도나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이끌 초대 시장을 뽑는 데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고 입을 모았다.

본투표 당일 참관인으로 함께한다는 변혜정(88·여)씨는 “이번 선거는 통합특별시의 첫 일

꾼을 내 손으로 뽑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지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생후 5개월 된 자녀를 유아차에 태워 온 정주찬(30대)씨는 “12·3 내린 이후 민주주의와 선거

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며 “아이의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세상에 아버지로서 한 표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각 서구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 5층 다목적홀에서도 점심시간을 앞두고 대기 행렬이 이

어졌는데, 관외 투표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구에 거주하는 김모(40대)씨는 “주소지가 광주가 아니지만 본투표 당일에도 광주에 있어야 해 점심 먹기 전 투표하러 왔다”며 “후보가 많아 헷갈리기도 했지만 공약을 하나하나 살펴본 뒤 가장 마음이 가는 이에게 투표했다”고 귀띔했다.

직장인 최예린(23·여)씨는 “나이를 먹을수록 선거의 의미가 중요하게 여겨져 꼼꼼히 공부하고 왔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많은 것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살림을 잘 이끌 것 같은 후보에게 표를 줬다”고 전했다.

사전 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10시30분께 전남대학교 용지관은 주말을 맞아 나들이 전 투표를 하기 위해 온 가족 단위 유권자들이 많았다.

다섯 살 세쌍둥이와 함께 온 김예담(43·여)씨는 “투표에 참여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었다”며 “훗날 투표 참여를 당연한 일로 여기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남구 효덕동 사전투표소에는 마감 시간까지 투표 행렬이 계속됐다.

오후 5시30분께 숨을 헐떡이며 투표소에 들어온 장민철(30)씨는 “본투표 때 참여가 어려워져서 급하게 왔다”며 “통합시장과 교육감 모두 향후 4년간 새로운 마음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해주시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서형우·이연상·윤찬용 기자

## 생애 첫 투표 기쁨·자녀 위한 선택...일부선 소동도

사전투표 이모저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 광주 지역 투표소에는 생애 첫 투표에 나선 청년부터 몸이 불편한 어르신, 민원을 보러 왔다가 한 표를 행사한 주민까지 다양한 이들이 발걸음을 했다. 같은 기간 일부 선거구에서는 현수막 훼손 신고와 투표소 주변 소동 등이 이어지면서 선거 과정의 단면이 드러나기도 했다.

◇휠체어·보행기 행렬...생애 첫 투표도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서구 농성2동 사전투표소. 보행기에 의지해 투표소를 찾은 이귀례(84·여)씨는 “몸이 불편해도 투표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동구 충장동 사전투표소에서는 아들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온 이찬수(57)씨가 “사회

적 약자들의 삶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소원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홀로 투표소를 찾은 박향복(68·여)씨는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생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둘째 날인 30일 남구 효덕동 사전투표소에는 아들과 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한옥순(84·여)씨가 찾아와 “중요한 선거인 만큼 빠질 수 없었다”며 기표소로 향했다.

올해 처음 투표권을 행사한 박차오름(20)씨는 “지난 선거 때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투표를 하지 못했다”며 “막상 투표할 나이가 되니 생각보다 어렵고 신중해졌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한 뒤 선택했다”고 말했다.

◇고유가 지원금 신청하다 사전투표까지  
지난 29일 광주 서구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민원을 보러 왔다가 투표에 참여하는 주민

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날 오전 11시께 고유가 지원금 신청을 위해 센터를 찾은 한 어르신은 5층으로 이동하려는 안내에 따라 투표장으로 올라왔다.

이후 지원금 신청 창구가 2층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내려가 신청을 마친 뒤, 5층 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다.

농성동 주민 정찬복(73)씨는 “사전투표일인 줄은 몰랐는데,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러 왔다가 투표소가 있다고 해 온 김에 한 표를 행사했다”며 “미리 염두해 둔 후보자가 있어 오래 고민하지는 않았다”고 귀띔했다.

◇선관위, 사전투표함 보관상황 공개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오후 1시께 장용기 광주시선거관리위원장은 서구 유촌동 서구·북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장소를 찾아 봉인 상태와 CCT

V 작동 여부 등을 점검했다.

보관장소에는 관내사전투표함 보관구역과 관외사전투표함을 보관할 우편투표함 보관구역이 구분돼 있었다.

출입문에는 훼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수 봉인지가 부착돼, 출입 때마다 관계자와 정당 추천위원 등이 입회해 상태를 확인한 뒤 출입한다.

보관장소 내부는 24시간 CCTV로 녹화되며 중앙선관위 통합관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확인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 각 사전투표소의 관내사전투표함이 구선관위로 옮겨져 보관된다”며 “관외사전투표봉투는 우체국을 거쳐 주소지 관할 선관위로 등기 발송된다”고 설명했다.

◇벽도 훼손신고...주정차 단속반발도  
사전투표 첫날에는 광주 북구에서 선거 현수

막 훼손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3시께 북구 신용동에 계시던 장관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 현수막이 훼손됐다 는 신고가 접수됐다.

훼손된 현수막은 후보 얼굴의 눈동자 부분이 담

뱃물에 의해 탄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확인과 함께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또 남구 봉선2동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동행정 복지센터에서는 광주남부모범운전자회의 안내에 따라 인근에 주차했으나 해당 장소에 있던 주차장 단속 고정식 카메라에 찍혔다는 불만소리도 나왔다.

한 유권자는 “선거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단속을 유연성 있게 해도 되지 않나”고 토로했다.

남구 관계자는 “현장 주차 공간 부족 등에 대비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주차 관리를 하려던 과정에서 훼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투표 시간 내 일시적으로 주차차량들에 대해선 과태료가 아닌 계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형우·이연상·윤찬용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